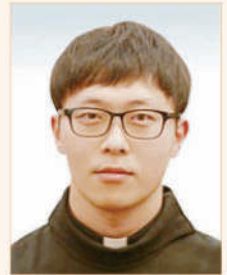




성숙한 어른으로의 초대 (책임있는 선택)

이창영 이레네오 신부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청년들과의 틴스타 온라인 교육 12번의 만남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 소그룹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 주었을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스스로 얻게 된 통찰을 듣게 될 때, 이 시간을 준비하고 동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은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제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성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동생은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망가진 유아보호실에서 땀나고 더운 환경에 불쾌함을 가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그 밖에 유아보호실에 계신 어른 분들도 똑같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처럼 울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불편함을 어른은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다려서 미사를 마치고 집에 가면 시원한 물로 씻으며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Response) 능력(Ability)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감자를 아이는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어른은 그것을 견디고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이란 감정의 동요를 잠시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책임의 반대말은 감정의 동요를 붙잡지 못하고 감정의 동요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며, 성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책임 있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말인 충동적인 선택이었는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지하게 혹은 심도 있게 자신을 돌아보는 얼굴들이 모니터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은 사실 노력(의지)으로 채워졌을 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훨씬 더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지게 합니다. 어른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감정적 동요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더 올바른 것을 위해 기다리고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선택’에 대한 토론을 마치면서 이 주제가 혹시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치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주었던 청년들의 후기들 곳곳에서 발견되는 ‘책임 있는 선택’에 대한 성찰들은 청년들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창조해주셨던 본래의 온전함으로 초대해 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고, 동반자로서 보람과 감사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후기 중에서...(책임 있는 선택과 관련한 후기들)



- 책임의 반대말은 충동이라는 것은 상호 증명의 의미, 호르몬 주기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과 함께 수업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게 하는 개량들이었다.
- 내 몸의 변화, 감정적인 스트레스 변화에 민감하게 보여주는 내 몸의 변화 상태도 알게 되었고, 몸의 차이, 생활방식, 자아의 차이 등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책임감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된다.
- 무엇보다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했던 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던 시간이었다.